정치권 '제주4·3 명예회복' 한목소리

윤 당선자 "유가족 아픔 국가 책임"
민주 "윤 약속 공허한 메아리 아니길"
정의당 "4·3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김부겸 국무총리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가 모두 참석해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5일 제주 방문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4·3 항쟁은) 2003년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민주당도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보수정권 대통령들과 달리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제주 4·3 영령의 안식을 기원한다"며 "오랜 침묵과 통곡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제주 4·3은 모두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한국의 역사"라며 "4·3의 숨비소리(물질을 하고 올라와 숨을 뱉는 때 내는 소리)가 역사의 숨결로 이어지는 제주의 진정한 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쉼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이날 "4·3의 아픔을 평화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진영대결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 4·3 항쟁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된 피의 역사이며 74년 동안 원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분명한 정명(正名·대의명분을 바로잡아 실질을 바르게 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정부 책임이 이뤄지게 됐다"면서도 "제주 4·3은 명백한 국가폭력인 만큼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윤정부 총리·장관 내정자 '현미경 검증' 예고

박홍근 "TF팀 구성 철저 검증"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관련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 그것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 향후 전개될 인사청문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총리로 노무현 정부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내정된 상황과 관련해선 "같이 일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면서도 "팔이 안으로만 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 점에서 엄격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정국 대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짜려고 한다"며 "우리의 원칙과 기조 등을 정해 검증 작업에 임하고, 인사청문 위원을 누구로 구성할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내부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미리 새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조직개편 아이디어에 대해선 "5년 단위로 계속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것이 과연 시대의 흐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 안정이나 정부 효율 면에서도 염려가 있다"며 "당선인이 이니셔티브를 갖되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성평등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정부 기조로는 "원칙 있는 협력, 책임 있는 견제"를 제시했다.

'원칙 있는 협력'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목적을 위한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며 "다만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 등 민주당의 가치에 후퇴되는 정치행위나 인사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정현 전 의원 오늘 전남지사 출마 선언

내일 공천신청·6일 공약 발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사진〉 전 국회의원이 4일 6·1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이 전 의원은 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전남은 변화가 필요하다. 전남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청와대 수석, 당대표,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반드시 전남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전남지사 선거 출마 계획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5일 국민의힘 중앙당을 찾아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일 오전 전남도의회를 찾아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발표하며 유권자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목표 득표율 등 선거 전략과 관련해 "낙선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없다. 출마한 이상 당연히 당선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지난 27년간은 민주당의 시간이었다. 이 기간 민주당은 많은 실험을 했지만, 결국 전남도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며 "이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했다. 이 전 의원 출마 선언에 앞서 전남지사 선거에는 이중효 국민의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과 진보당 민점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설 예정인 김영록 현 전남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용재 "광양, 문화·관광·주거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재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3일 "광양시는 인근 순천, 여수와 비교하면 문화, 관광 분야와 함께 주거 환경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며, 저탄소 정책에 대응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용재 예비후보는 "광양시는 1조예산 시대를 열어 인구 15만명의 중소도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우수한 도시"라며 "그러나 문화, 관광분야와 주거환경 측면에선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정주 여건, 문화와 관광 자원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시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시민 각자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

이민준, 도의원 사퇴 후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민준 전 전남도의원은 "지방정치 20년 경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풍요로운 나주를 만드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최근 나주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8년 동안 나주시정에 실망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년 전 꿈을 안고 제7대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했던 청년 이민준이 재선, 3선을 거쳐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까지 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나주시민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신산업 집중육성 ▲신도심, 구도심,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도농융합 도시 구축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등 주요 공약 이행을 통해 나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덕수 나주시장 예비후보 "나주를 스마트 에코시티로"

더불어민주당 김덕수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기후와 환경의 시대, 오염물질 제로의 스마트 에코시티 나주를 만들고 나주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에코시티는 생태계의 보전과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며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이 도시와 융·복합되고 환경(에코)의 개념이 추가된 스마트 에코시티 사업을 추진, 나주를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주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기초생활시설 확충에 힘써 사는 곳과 관계없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광군 공고 제2022-387호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4.

영 광 군 수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
나. 위 치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680-1번지 일원
다. 설비개요
• 형 태 : 옥내 GIS형
• 주변압기 : 154kV/23kV 15/20MVA × 3대, 2Bank(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10CCT, 23kV 개폐장치 × 11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라.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6년 8월(약 59개월)
마.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2.03.25. ~ 2022.04.10.(17일간)
나. 열람장소 : 영광군 염산면사무소
한전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yeonggwang.go.kr)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가. 개최일시/장소
- 2022.04.06.(수) 10:30 ~ / 영광천일염 자연학습장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411)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2022.03.25. ~ 2022.04.10.)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등의 의견 제출서식 이용(서면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062-720-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고 제2022-410호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1.

영 광 군 수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산면 일원
다. 설비개요
• 선로길이 : 약 21.139km
• 지 지 물 : 철탑 61기
• 전 선 :
용량증대 알루미늄연선(PIAC) 330㎟ × 단도체 S × 4회선
라.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6년 8월(약 54개월)
마.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4. 1. ~ 2022. 4. 15.
나. 열람장소 : 영광군 백수읍사무소
한전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yeonggwang.go.kr)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가. 개최일시/장소
- 2022. 4. 6. 14:00 ~ / 영광헤라웨딩홀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170)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2022. 4. 1. ~ 2022. 4. 15.)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등의 의견 제출서식 이용(서면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062-720-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할 합 병 공 고

2022년 03월 31일 개최된 주식회사 이지미래개발 (이하 '갑') 과 주식회사 하남파라곤 (이하 '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할대상 등록권 : 토목건축공사업 (전남 : 150240)
조경공사업 (경기 : 10-0188)
2. 분할합병 예정일 : 2022년 05월 06일

2022년 04월 04일

(갑) 주식회사 이지미래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층(신안동)
대표이사 권 윤

(을) 주식회사 하남파라곤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층(신안동)
사내이사 정 영 현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2022년 03월 31일 개최된 주식회사 라인산업 (이하 '갑') 의 임시주주총회와, 같은날 개최된 주식회사 이지개발 (이하 '을')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은 '을'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합 병 법 인 : '갑' 주식회사 라인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06호(신안동)
대표이사 권 혁 용

피합병법인 : '을' 주식회사 이지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층(신안동)
사내이사 정 영 현

산행안내

4월10일(일)

▲광주kj산악회 4월10일(일) 경기도파주시문산읍 ■ 평화누리길8코스 ■ (반구정,임진각,화석정,율곡습지)&마장호출렁다리&오두산전망대,트레킹 ※염주체육관05:00,동아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주차장05: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